

“傳法至上은 불광운동 대변한 독특한 특징”

(전법지상)

불광사, 불광 창립 40주년 기념 세미나

잡설 불광사가 불광 창립 40주년을 맞아 9월 27일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창립자인 광덕 스님의 사상과 불광운동 40년을 돌아보고 미래 전법운동에 더 매진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전법사상이 임대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불광운동의 사상적 원칙을 다시 점검하고 미래 전법비전을 다시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진 세미나는 광덕 스님의 초창기 불광운동에 대한 회고를 시작으로 근현대 발전상, 미래 발전방향 모색으로 진행됐다.

먼저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광덕 큰스님의 향기와 뜻을 기리며” 기초발제를 통해 자신이 직접 만난 광덕 스님을 회고했다.

방영준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더 포켓이 기억난다”며 “광덕 스님을 미남 중의 미남였으며, 목소리는 청아한 서울말로 세소리 같았다”고 떠올렸다. 또 이론보다 실천을 강조하는 혁명가이자 회사를 경영하는 CEO의 모습을 지녔고, 기도를 강조해 이 지적이지만 할 것이라 신입관을 깨뜨렸다고 고백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광덕 스님의 불광사상이 현대 한국불교의 대중화를 이끈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정희 서울대 강사는 “여러 문헌을 통해 볼 때 광덕 스님은 용성 스님의 사상을 높이 평가했고, 특히 대중포교를 위한 독립교당 설치와 경전의 한글화 등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덕 스님은 불교의 생활화와 교단의 조직화 등에서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방영준 “광덕 스님 이론보다 실천 강조”

김정희 “용성 스님 대각사상에서도 영향”

김광식 “일간 불광과 불광법회로 대중화”

서재명 “불광운동은 구국구세 차원 운동”

김 교수는 “대중들이 삶 속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방안을 제시해 불교의 생활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용성의 역경이나 저술활동에 비해 보다 발전된 면모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식 동국대 교수는 소천 스님의 금강경 독송 구국운동에 참여한 광덕 스님이 그 실천성과 운동성을 반야바라밀운동에 투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운동의 근거조직과



9월 27일 열린 불광 창립 4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는 불광운동의 역사와 함께 방향 제시가 이뤄졌다.

대중화에 미진했던 점은 (월간 불광)과 불광법회를 통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과 소천의 각·활동사상과 불광운동의 상관성이 그려져야 한다”며 “광덕 스님의 사상을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서재명 불광연구원 상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불광운동은 전법지상의 이념을 실천하는 실행조직인 법등에 의한 자발적인 실천활동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며 “광덕 스님에게 전법은 단위 사찰이나 교단 차원이 아닌 구국구세의 개념으로 확장되며 전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공생공영으로 귀결된다”고 정의했다.

서 연구원은 “따라서 불광운동에 동참하는 불자들은 누구나 전법에 나설 의무가 주어진다. 이처럼 전법지상은 불광운동을 대변하는 가장 독특한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광운동은 한국불교의 오랜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러한 불광사상의 연구에 있어 그 실천에 대한 체험적 통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광덕 스님과 같이 당대의 절망 속에 목숨을 걸고 광명을 갈구한 생존적 동기가 없으며, 동포 구원이란 사회적 문제의식, 책임의식이 부족하기에 그 한계를 살피고 발전방향을 찾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미술연구 조사보고집 발간

국립중앙박물관은 2012년부터 실시한 목조불상 조사사업의 결과와 2005년 이후 실시된 보존처리 내용이 담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교조사 조사보고 1’을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목조불상 5점과 소조불상 1점 등 개별 유물에 대한 실측도면과 X-ray 사진, 수층 분석과 연대측정, 성분 분석 등 상세한 조사 결과가 수록됐다.

특히 덕수 953번 목조관음보살좌상은 그동안 조선 초기 불상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고려시대 목조관음보살상으로 밝혀졌다.

박물관은 “이왕기박물관이 소장하다 이관된 불상을 정밀하게 조사했더니 양식이 나 제작 기법, 머리와 몸체에서 발견된 복장물,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고려 13세기 불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려 목조불상은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등 10점 정도만이 남아있다. 이 불상은 오른쪽 다리를 굽혀 세우고



고려불상으로 밝혀진 '덕수953' 불상

왼쪽 다리는 아래로 내린 유희좌(遊戯坐) 자세의 목조보살상이다. 높이는 67.65cm, 머리에서는 제작 당시 넣은 고려 시대 '대수구다라니경(大隨求陀羅尼經)' 판본이 발견됐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인 역할 기여’ 불교문학심포지엄

한국불교문인협회(회장 선진규)는 10월 4일 서울 낙산묘자사 원통보전에서 제 23회 불교문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현대문학사에 끼친 불교문인들의 역할과 기여’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

서 허병식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연구원은 ‘불교문화사와 불교문학연구의 재인식’ 발제에서 “불교문학이란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국문학

자들이 주로 좁은 의미에서의 ‘불교 문학’에 주목했다면, 불교학자의 입장은 넓은 의미의 ‘불교 문학’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원은 “불교의 유산을 기반으로 삼은 현대문학에 대한 연구는 문화적 과거를 창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문화의 저력을 새롭게 확인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의 깨달음, 심리치료의 통찰’ 포럼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10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의 깨달음, 심리치료의 통찰’을 주제로 10월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에 개최된 불교상담개발원 창립기념세미나 주제 ‘불교와 심리치료에서 본 소통-수용, 경청, 공감’을 한 단계 더 심화한 ‘통찰’을 주제로 개최된다. 세미나 사회는 포교연구실 사

무국장 해안 스님이, 첫 번째 주제인 ‘불교에서의 깨달음’의 발표는 글렌틀렌법사, 토론은 조은수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맡았다. 두 번째 주제인 ‘깨달음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는 이문성 융학

파 정신분석가의 발표와 이종표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며, 전체 토론 좌장은 최홍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겸임교수가 맡는다.

노덕현 기자

남해군 고려대장경 판각유적지 복원 세미나

고산문화재단(이사장 영담)과 남해군(군수 박영일)은 9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남해군 고려대장경 판각 유적지 복원을 위한 정책개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가 ‘고려대장경의 가치와 유적지 발굴·복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초강연을 한다.

이어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이 ‘고려대장경판은 모두 남해에서 판각됐다’

김미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조사연구원이 ‘남해군 고려대장경 판각 유적 발굴성과와 향후 과제’, 이원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이 ‘판각유적의 가치와 유적지 발굴·복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韓中日, 상·장례 정부 지원” 한목소리

생사문화산업연구소 개소 기념 국제 학술세미나서



9월 25일 동국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상·장례 사업현황과 불교계의 참여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연구소(소장 신성현)와 생사문화산업학과는 9월 25일 동국대 학명세미나실에서 ‘동아시아 상·장례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상·장례 산업을 주제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최근 20년 동안 동아시아 지역 사회 변화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상·장례 산업의 현황을 조망하고 중국과 일본의 상황을 들어 향후 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2000년 생사문화산업학과를 창설한 보광스님과 이명수 보건복지국회의원, 동국대 장례비즈니스를 수료한 프리드 박현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신성현 소장을 1부 좌장으로 중국의 왕부자(王夫子) 장사민정직업학원 교수가 발제했다.

왕부자 교수는 발제에서 중국의 장례산업은 1983년 이후 개혁개방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매년 사망자는 1000만 명에 달하고 있어 이 분야 산업의 향후 팽창성을 우려했다.

장사지역의 장례비용은 중국 특유의 체면과 유행 문화 등의 요인으로 한화로 약

2500만원 정도 많은 액수가 소요된다. 이에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장례 정책이 있지만 아직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노우에 하루요 동양대 교수는 ‘일본의 상·장례 비즈니스의 현황과 과제’ 발표에서 일본 사회의 전통 장례의례와 현대사회와

- 중국, 1983년 개방이후 발전
- 일본, 장례지도사 자격제 필요
- 한국, 예를 통해 유족 위무 해야

의 괴리,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여파에 의한 장례의 개인화와 소규모화 등을 설명했다.

이노우에 교수는 “소비자 욕구 변화를 감안하여 상·장례산업 업자의 등급 부여나 장례지도사 자격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부에서 이명수 동국대 교수는 ‘한국

상·장례 산업의 발전과 종사원의 역할’ 발제에서 한국 상·장례 분야의 종사자의 직업윤리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상·장례 산업의 업무는 재화 창출을 최선의 목표로 하는 일반 산업업종과 달리 ‘예’를 통해 고인과 유족을 위무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승현 동국대 연구위원은 ‘장례식장 종사자의 감영관리에 관한 연구’에서 장례식장 종사원들의 건강 보호를 강조했다.

남승현 연구위원은 “사망자 인수 시 감염주의 표시 부착과 시신 체액 관리 등이 중요하며, 개인 위생관리 및 예방접종, 감염관리 교육, 영안실 출입제한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동구 동국대 연구원은 ‘한국상조산업의 현황과 과제’에서 한국 상조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결여 현상을 지적하고 상조회사 및 공제조합의 건전성 관리, 장례 상품의 차별화와 다양화를 통한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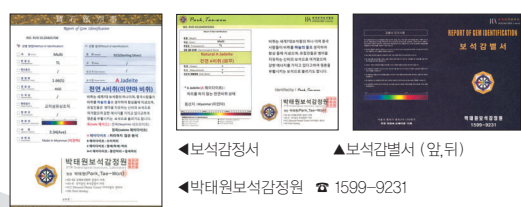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종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품에 지냈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민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격과 불경이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치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가 격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사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